

# -나 보다

~나 보다, ~인가 보다 (추측)

추측을 말하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. -(으)ㄴ/는 모양이다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구어적이며, 형용사에서는 형태가 달라집니다.

## ■ 결합 방법

| 품사        | 형태        | 예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동사        | -나 보다     | 오다 → 오나 봐요   |
| 형용사       | -(으)ㄴ가 보다 | 바쁘다 → 바쁜가 봐요 |
| 있다 / 없다류  | -나 보다     | 재미있나 봐요      |
| 과거, 모든 품사 | -았/었나 보다  | 갔나 봐요        |
| 이다        | -인가 보다    | 학생인가 봐요      |
| ㄹ로 끝남     | ㄹ 탈락      | 만들다 → 만드나 봐요 |

## ■ 언제 쓰나요

핵심은 품사에 따른 구분입니다. 동사는 -나 보다는 씁니다: 오나 봐요. 형용사는 -(으)ㄴ가 보다는 씁니다: 바쁜가 봐요. 이다는 -인가 보다가 됩니다. 과거는 모두 -았/었나 보다이며, 있다와 없다는 동사를 따릅니다: 있나 봐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-나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 → 만드나 봐요.

모양이다처럼 눈에 뵈는 단서를 근거로 추론하는 표현이므로 자기 자신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단서로 추측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

구어적인 표현입니다. 글이나 보고서에서는 모양이다나 것 같다가 더 잘 어울립니다.

## ■ 예문

- 1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있네요. 비가 오나 봐요.
- 2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바쁜가 봐요.
- 3 불이 꺼져 있어요. 벌써 갔나 봐요.
- 4 줄이 긴 걸 보니 맛있나 봐요.
- 5 부엌이 시끄러운데 뭘 만드나 봐요.
- 6 저분이 새로 오신 선생님인가 봐요.

## ■ 비교

**-(으)ㄴ/는 모양이다**  
의미는 거의 같습니다. -나 보다는 말할 때 쓰고, 모양이다는 글에서 씁니다.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.  
비가 오나 봐요. (대화) /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. (신중한 표현)

**-(으)ㄴ/는 것 같다**  
것 같다는 셋 중 가장 넓게 쓰이며, 자기 자신의 상태에도 쓸 수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. 확신이 없을 때는 이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.  
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. (나에 대해) / 감기에 걸렸나 봐요. (다른 사람에 대해)

**형용사 형태**  
형용사의 -(으)ㄴ가 형태는 학습자가 자주 잊는 부분입니다. 바쁘나 봐요는 흔한 오류이며, 바쁜가 봐요가 맞습니다.  
오나 봐요 (동사) / 바쁜가 봐요 (형용사)

## ■ 주의

- ✗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바쁘나 봐요.  
○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바쁜가 봐요.  
형용사는 -(으)ㄴ가 보다는 씁니다. -나 보다는 동사와 있다류에만 씁니다.
- ✗ 저는 감기에 걸렸나 봐요.  
○ 저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.  
자기 상태를 외부 단서로 추측하지는 않습니다. 자신에 대해서는 것 같다는 씁시오.
- ✗ 부엌에서 뭘 만들나 봐요.  
○ 부엌에서 뭘 만드나 봐요.  
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, -(으)세요 앞에서처럼 -나 앞에서도 ㄹ이 탈락합니다.